

地下資源開發과 應用地質學

鑛床學이란 特殊學問



會長 金玉準

學問이 發展하면 할수록 細分되고 專門化되게 마련이며 이는 오늘날 先進諸國에서 찾아볼수 있는 現實일뿐만 아니라 學問하는 사람들의 상식인 것이다. 우리 地質學界에도 겨우 두개의 學會가 있는데 不過함에도 不拘하고 가장 발성이 많고 誤解와 中傷謀略이 많은 것 같아서 이機會에 簡單히 한마디 하는 것이 會長으로서의 義務인 것 같기도 하다.

美國의 地質學界를 살펴보면 全體地質學分野에 걸친 學會로서는 Geological Society of America 가 있고 細分된 地質分野에 걸친 學會로서는 Society of Economic Geologists, American Association of Petroleum Geologists, Mineralogical Society of America, Paleontological Society, Society of Economic Paleontologists and Mineralogists, Paleontological Society, Society of Exploration Geophysicists 등이 있어 각己 會誌를 發刊하고 있고 其外에도 著名한 學術誌 또는 Journal of Geology, American Journal of Science, Geotimes, Micropaleontology Bulletin of American Paleontology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大韓地質學會는 美國의 Geological Society of America 에, 大韓 鑛山地質學會는 Society of Economic Geologists 에 該當되며, 大韓鑛山地質學會는 地質分野와는 別個人 採鑛工學에 關한 學會인 것이다. 20世紀後半의 世界趨勢가 이러하거늘 우리나라에서도 學會가 細分되는 것은 學問이 向上發展하고 있다는 徵候이며

오히려 바람직하고 慶賀하여야 할 現象인데도 不拘하고 巷間에는 大韓地質學會, 大韓鑛山地質學會와 大韓鑛山地質學會를 統合하라고 하는 學問을 모르는 人士들이 있는가 하면 他學會에 對하여 극구 謀略中傷을 일삼고 分野가 다름에도 不拘하고 自己學會의 所屬學問分野인 것 처럼 떠드는 學者를 自稱하는 似而非學者들이 아직도 많다는 사실을 日常 느끼게 되어 筆者는 항상 비애를 느끼고 있었다.

近來 우리나라에는 鑛山地質學(Economic Geology 또는 Mining Geology)을 專攻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이分野의 學會를 設立할 時機가 왔다고 認定하여 1968년에 大韓鑛山地質學會를 創設하였고 그後 繼續하여 會員數가 늘어났고 學會誌(광산지질)도 每年 4回式 發刊하여 今年에는 第8卷에 이르고 있다.

大韓鑛山地質學會는 鑛山地質學을 專攻하는 學徒들의 모임으로서 鑛山地質學과 一般應用地質學을 發展시키므로써 國內地下資源開發과 應用地質工學의 發展에 이바지하자는 目的을 두고 創設된 것이다. 따라서 會員들은 鑛山地質學者, 鑛山工學者와 技術者, 鑛山經營者 및 應用地質關係者들로 構成되어 있고—앞으로는 여기서로 細分分派될 것임—現在 會員數는 약 400名에 達하고 있다.

鑛山地質學이란 地質學과 鑛山工學을 合친 것이 아니고 鑛床學(Economic Geology)이란 應用地質學의 一部門을 다루는 學問이라는 것을 非

專門家들을 爲하여 이機會에 한마디 하여 두는
마이다.

本學會가 發足한 以來 鑛床學의 發展과 地下
資源開發 및 應用地質工學分野에 貢獻한바 컸음
을 느끼며 흐뭇하게 生覺한다. 例年과 다름없이
今年度の 學會事業의 큰줄거리를 이루는 것은
學會誌의 發刊, 學術交流와 研究發表會와 學術
旅行이다.

學會誌는 豫言대로 8권 3호까지 出刊되었고
그편집 主眼은 現場에서 일하는 分들이 理解할
수 있도록 쉽게 저술하고 또 後日에 參考될수있
는 모—는 資料를 收錄한다는데 두고 있다는 點
이 本學會誌의 特徵이기도 하다.

學術發表會는 春秋定期와 隨時로 나누는데 今
年度에는 다음과 같이 進行되었다.

春季學術發表會는 高麗大學에서 開催하였고
鑛床學에 관한 젊은 學者들의 研究發表와 各地
鑛山現場技士들의 自己鑛山의 地質과 鑛床成因
에 對한 多年間의 調查研究結果를 發表한바 있
어 總13編의 研究結果가 發表되고 討議되었다.

秋季學術講演會는 “韓國의 金鑛開發”이란 主
題下에 國立地質鑛物研究者와 共同主催下에 國
立地質鑛物研究所에서 開催되었는데 그目的은
金鑛業에 從事하는 技術者와 經營者들에게 새로
운 知識과 技術을 傳達하는데 두었던 것이다.
우리나라의 金鑛開發史에서 부터 鑛床學의 綜合
과 靑化製鍊法에 걸치는 7編의 演題와 討論會가
있었다.

國際學術交流面에서 보면 本學術會에서는 曠
이나 多彩롭고 結實을 많이 거둔 活動을 展開하
였었다.

1. 斑岩銅鑛의 權威者인 英國의 Sillitoe 博士
를 모시고 斑岩銅鑛에 關한 세미나를 가졌고

2. Stanford 大學의 Dideson 博士를 招請하여

海水와 玄武岩의 相互作用”으로서 形成되는 鑛
床成因論이란 새로운 分野의 세미나를 가졌었고

3. 日本東京教育大學의 宮澤博士를 招請하여
各地의 接觸交代鑛床을 研究調查旅行을 가졌고

4. 光復30週年紀念 國際學術會議에 招請되었
던 地質學者인 美國의 R. G. Coleman 博士와 朴
昌庫博士를 모시고 세미나를 開催하였는데 Col-
eman 博士는 “Ophiolite와 鑛床의 形成”, 朴昌
庫博士는 “地球物理學의 發展이 地球科學에 미
친 影響”이란 題目的 강연회를 가졌고 Coleman
博士와 本學會員들은 沃川系地帶로 視察旅行까
지 가졌었다.

5. 國內學者로서 外國에서 論文을 發表한 사
람은 金玉準博士와 李大聲博士이다.

金博士는 8월에 Vancouver 에서 열린 第13次
太平洋科學會議에서 “Geology and Tectonics of
the Olochon Orogenic Belt”를 發表하고 外國學
者들과 British Columbia의 Coastal Batholith 를
視察旅行을 하였고 李博士는 11월에 Malaysia에
서 열리는 IGCP/CPMP(國際地質對比事業/環太
平洋深成岩研究計劃)에 參加하여 “沃川系의 深
成岩과 鑛化作用”을 發表한 後 Malaysia와 Tha¹
land의 地質과 鑛山을 視察하고 歸國할 豫定이
다.

學術旅行으로서는 春季에는 忠南廣川地域에서
稼行中인 砂金船(Dredge)의 運營實態와 砂金船,
그리고 廣川石綿鑛의 賦存과 成因을 2日間에 걸
쳐 研究觀察하였고 秋季에는 江原道 襄陽鐵鑛山
에서 現地세미나와 鑛床成因을 알기爲한 坑內視
察등 3일에 걸친 旅行을 가졌었다.

以上에서 略述한바로서도 짐작할수 있드시 本
學會의 今年度事業은 한마디로 말하여 從前에 비
할수 없을 만큼 多彩로웠고 結實이 많았던 것이
있다고 매듭지을수 있을 것 같다.

有備無患精神으로 民防衛隊列에 앞장서서
모든 事態에 處理해 나갑시다.